

광주 문화수도 특별법도 통과 됐는데...

조성추 발족 도대체 언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고 심의 기구인 제2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6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면서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에 급이 가고 있다.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할 조성위원회가 수차례 발족 시점을 미루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장만 내정하고 6개월째 표류 문광부 "민간위원 14명 이미 확정"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견해 차로 수개월 간 난항을 겪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사업의 급속한 진전을 기대했던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시민단체 등은 조성위원회 발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제1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송기숙)는 지난 3월말로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사전에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조성위원을 선임해야 할데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4월 중순에서야 신임 위원장(송재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만을 내정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위촉직 민간 조성위원(15명)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수개월간 조성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한 것은 송재구 위원

장 내정자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 안과 문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의 추천 안이 다소 상이한데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선별 작업이 더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은 8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조성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킨다는 공고까지 내는 등 당초 늦어도 8월말까지 조성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분야 후보로 추천된 고려대 J교수가 위촉을 사양한데다 다른 1명의 후보도 결격사유가 발생, 후보를 다시 선출해 송 내정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족이 지연됐다.

정부는 추가로 민간위원 선별작업을 벌였으나 15명을 모두 확정짓지 못했으며, 지난 달말 송 내정자를 비롯 민간위원 14명만을 민간위원으로 확정시킨 상태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9월 중순 이후 위촉직 수어를 통해 조성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며, 그 이후 나머지 민간위원 1명에 대한 선별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개혁연대 유동훈 사무처장은 "국책사업의 최고 심의기구를 6개월간 꾸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4명을 최종 확정된 상태"라면서 "국책사업의 민간위원인 만큼 철저한 검증작업 과정에서 1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조성위원회 발족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집행기구 성격인 문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기획단과 별도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위원장을 비롯 위촉 민간위원 15명과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수장 없는 헌재 심리차질 불가피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출범 이래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

14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소한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헌법재판소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된다.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대행에 나섰지만 사학법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심리 차질은 불가피할

윤영철 소장·재판관 3명 퇴임

국회 '전효숙 동의안' 또 무산

사상 초유 '수장 공백' 현실로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상정 재무산으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과 관련,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장은 "우리당은 고심 끝에 야 3당이

제한한 증제안을 수용했다"며 "한나라당 야적과 당리당략 때문에 헌법기관의 공백사태가 빚어져 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는 임명과정에서도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회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관철하려다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것이라며 군소 야당의 힘을 빌려 편법으로 국회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위헌소송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소수야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6년 동안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며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무엇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기준인지를 찾는 데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근대화과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얻은 성과를 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로 출범할 4기 재판부에 대해 '사회적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영준·이동홍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목영준 이동홍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98명 중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목영준 재판관 선출안은 찬성 229표, 반대 29표, 무효 7표로, 이동홍 재판관 선출안은 찬성 222표, 반대 38표, 무효 5표로 각각 가결됐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여야의 대치로 후임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윤영철 소장이 퇴임식 후 헌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수사 피하기' 美 장기체류?

검찰 통보후 '밴플리트상' 시상행사 참석 출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는 19일 미국 코리아사이터티의 '밴플리트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가족들과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학수 그룹 전략기획실장 등 그룹과 계열사 경영진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주 말과 다음주 초에 출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은 현지의 삼성 사업장 방문과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와 면담 등을 위해 당분간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미국 내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에서는 이 회장이 당당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할값 배정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국정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신병치료' 등을 명분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에 사전통보 없이 전격 출국했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결국 구속된 사례에서 보듯 이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비난여론과 함께 검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건 前총리 영남권 공약 첫 발

총리직 사퇴후 첫 대구 방문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고건 전 총리가 총리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14일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구애의 제스처를 취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처가는 경북 문경이고 형님의 처가는 경북 영주로, 선친께서 두 어머니를 모두 대구·경북지역에서 보셨다"면서 대구·경북지역과의 개인적인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이어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행사에 당시 새마을운동 지도자로서 박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총리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전북 전주와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지역별 미래와 경제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

는데 이어 연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의 측근은 "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한 지역 기구들은 과거 중앙당-지구당과 같은 개념이나 '미래와 경제'의 하부 기구 성격이 아니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고 전 총리의 이날 대구 방문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겨냥, 대구·경북지역에서 발판을 다지기 위한 영남권 공약의 첫 단추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고 전 총리가 이날 방문한 서문시장이 대권도전에 실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고비 때마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발판으로 애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14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생선가게에서 갈치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 입원외과 전문의

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5.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 입원외과 전문의

6.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7.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8.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9.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10.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 입원외과 전문의

11.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12.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13.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14.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

15. 김민준 성형외과 전문의 (010-9701-1111)